

## 의식개혁 캠페인

# 富족적「공정한구칙」필요

서울의 대표적 달동네 중 하나인 신림7동 난곡의 한 야학교실에서 26일밤 만난 鄭모씨(23)는 『지존과 사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』는 기자의 질문문에 『..나도 그런 충동들을 느꼈다』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.

### 범죄충동 느껴

농촌에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상경, 10여년 동안 플라스틱 제조공장 에서 잔빠가 굵은 그는 얼마전 봉제공장으로 옮겨 월급 70만원에 트럭

을 몰면서 남품들을 한 다.

『한달전 방배동 골목에 카페를 낸 선배를 도와 잡일을 거든 적이 있어요. 말로만 듣던 오랜지

# 「결과」아닌「과정」에 승복이 중요

좁을 눈으로 확인한 셈 이죠. 뼈에 휴대폰에 고금승용차에 : 저보다 어린 것들이 대나무터 러브호텔에 드나들잖

나』 그는 「내 인생은 왜 이

렇게 비참한가 하는 생 각에 자살충동까지 느꼈

다면서 「선배일을 그만 둔 3~4일동안 총을

했다」고 털어놓았다.

지존과 일당이 「가진 자에 대한 증오」때문이 라고 범행동기를 설명한

적 범행을 사회탐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. 그러나

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 이 우리사회에는 뿌리깊 은 「분배의 왜곡」이 있

않았다.

최근 모일간지와 방송 사가 지존과사건의 원인 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10명중 9명의 시민들이 「부의 불평등이 심한 우

을 답하기도 했다.

정부는 우리의 계층별 소득분배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과 비

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. 통계청은 최근 도시근로자 가계를 대상 으로한 소득분배구조 조

사에서 「68개도시 근로 자가구의 지니계수(소득

을 받는다)는 85년 0.31을 고비로 낮아지기

시작해 지난해는 0.28을 기록, 고른 소득분 포쪽으로 나아가고 있

달리 일부 국민이 몸으

로 느끼는 상대적 빈곤 감은 매우 심각하다. 대구사회연구소(소장 徐錫九변호사)의 연구국 장 金炯基교수(경북대

정제정의 절실

대부분 건설일용노동 자 파출부 행사등에 종 사하면서 가구당 월50만 원에서 80만원을 버는

이들에게 「빛안지고 약 간의 저축이 가능한 정

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한달에 얼마의 소득이 필요하냐」고 물었더니 평균 「1백7만원」이라 는 대답이 나온 것. 또 「얼마 정도면 풍족하게 살 수 있느냐」는 질문에 는 평균 「3백45만원」으 로 답변했다. 金교수는 「주관적인

부유선(3백45만원)과 빈곤선(1백7만원) 실 제소득(50만~80만원)간 의 격차가 이처럼 크니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」고 진단했 다. (許文明)

2면에 계속

빠르게 잘 걸리는 -  
**국제전화**  
001